

시원한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며 즐겨요!

-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104명, 7월말·8월초에 56명 집중 발생
- 물놀이, 다슬기 채취와 해루질 등을 할 때도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방학과 함께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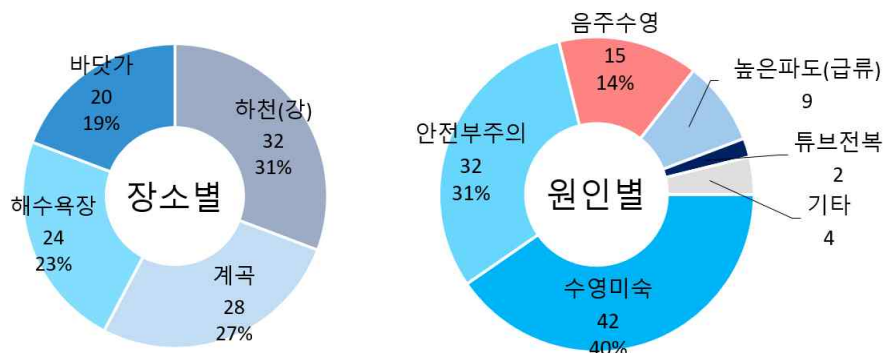
최근 5년('21~'25)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04명으로, 전체 사고의 54%(56명)가 여름방학과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생했다.

구 분 (단위: 명)	합 계	6 월 (9명, 9%)			7월 (53명, 51%)			8월 (42명, 40%)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물놀이 사망	104	4	3	2	12	7	34	22	16	4

장소별로는 하천(강)이 32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28명(27%), 해수욕장 24명(23%), 바닷가 20명(19%) 순이었다.

사고 원인으로서는 수영 미숙이 42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다 발생하는 등의 안전 부주의 32명(31%), 음주 수영이 15명(14%), 높은 파도나 급류 휩쓸림 9명(9%), 튜브 전복 사고가 뒤를 이었다.

< 최근 5년간('21~'25) 장소·원인별 물놀이 사고 사망자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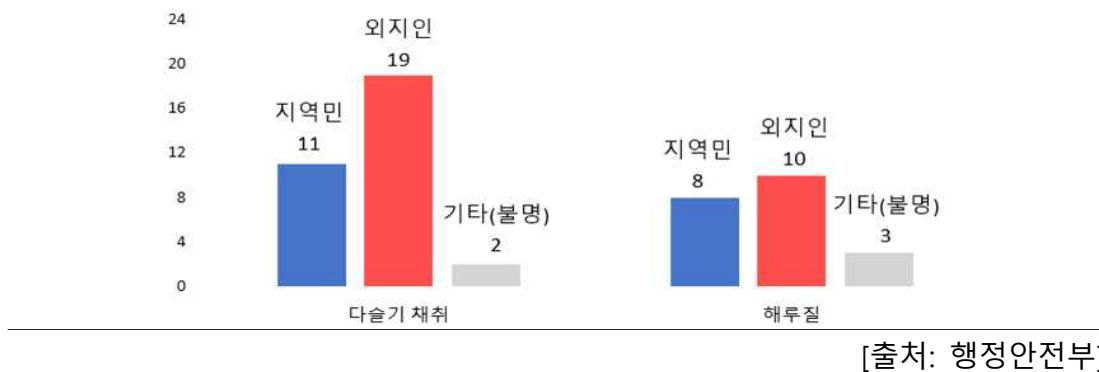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또한, 최근 3년간 여름철(6월~8월)에 다슬기 채취 중 발생한 사망자는 총 32명으로, 이 중 절반인 16명이 8월에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여름철(6월~8월) 다슬기 채취 중 사망자: 6월 9명, 7월 7명, 8월 16명

특히, 다슬기 채취 중 사망자는 지역 주민(11명, 34%)보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19명, 59%)의 비율이 25%p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해루질 중 발생한 사망자 역시 외지인 비중이 높았다.

< 최근 3년간('23~'25) 다슬기 채취 및 해루질 중 사망자 > (단위: 명)



행정안전부는 물놀이와 다슬기 채취, 해루질 시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물놀이

우선 물놀이를 할 때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에서는 안내에 따라 지정된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며, 음주 후나 식사 직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물놀이를 자제해야 한다.

물속에서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즉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지도한다.

아울러, 물놀이 중 과도한 경쟁이나 장난 등은 자제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며 119에 신고한 뒤,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의 안전장비 등을 활용해야 한다.

>> 다슬기 채취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 활동하고, 낮은 곳이나 어두워진 뒤에는 채취하지 않는다.

하천 바닥은 고르지 않고 이끼 등으로 미끄러우므로 반드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채취망에는 물에 잘 뜨는 고무공이나 스티로폼을 달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해루질

해루질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만조(물이 들어오는 시각)로 바뀌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구명조끼와 가슴장화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밝은 손전등과 자신의 위치를 알릴 호루라기 등을 갖춘다.

해루질 역시 혼자 하는 것은 피하고 두 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며, 출입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잠기고 수심이 깊은 갯골 지형은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지형지물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순간의 방심과 안전 부주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 음주 수용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총괄>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담당부서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	책임자	과장	박범수 (044-205-5240)
		담당자	사무관	박희성 (044-205-4251)

물놀이 이렇게 행동하세요!



물놀이 행동요령
영상 보기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 충분히 하기!



물놀이·낙시 등을 할 때는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기!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기!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해요!

* 튜브,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요!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 주세요!

※ 그림: 시 월용



그래도 다슬기를 잡고 싶다면?



다슬기 채취 시
반드시
지켜주세요!

1



안전용품(구명조끼) 착용 필수

2



낮선 곳이나 어두울 땐
다슬기 채취하지 않기

3



혼자가지 말고
꼭 두명 이상 함께 하기

4



식사음주 후에 들어가지 않기

5



위험시 즉시 119 신고



행정안전부